

자활 일기

vol. 22
2018

스페셜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른 자활인프라 개편 준비

우리가 현장이다
김해지역자활센터

꿈이 자라는 일터
군산지역자활센터 쌍쌍자전거 사업단

자활프리즘
허브누리 사업단, 허브이야기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 언니 바닷가에서
주어온 조개껍데기

여긴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데굴데굴 굴리며 놀다
짜 잃은 조개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다물소리

<조개껍질> 윤동주

스페셜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른 자활인프라 개편 준비

- 02 대전광역자활센터
- 04 부산광역자활센터
- 06 전남광역자활센터
- 08 강원광역자활센터

자활현장

- 10 우리가 현장이다 김해지역자활센터
- 14 꿈이 자라는 일터 군산지역자활센터 쌍쌍자전거 사업단
- 16 이 사람(1) 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전국빨래자랑 이원자, 백사레 공동대표
- 20 이 사람(2)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박준홍
- 22 고맙습니다 안미숙(자활 참여자) - 박만호(삼척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26 자활프리즘 허브누리 사업단, 허브이야기(강원 원주)

자활충전소

- 28 자활수첩 위기 가정의 자녀 진로, 의식변화에 달려 있다.
- 30 건강백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32 맘속풍경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34 문화산책 향기 나는 라디오

생기발랄

- 36 자활톤+ 자활 에세이 저소득 청년 직장인 지원 제도(청년 통장)
- 38 Now & News 중앙자활센터 소식
- 39 독자 참여코너 가로세로 낱말퀴즈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www.cssf.or.kr) 소통마당 홍보자료실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통권 제22호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5층 www.cssf.or.kr

디자인·인쇄·제작 좋은PR소야 070-4616-4040~3 이미지 Getty Images.Bank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중앙자활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에 따른 자활인프라 개편 준비

2017년 8월 수립된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에서 자활인프라 및 교육체계 개편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또한 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서비스 연구원의 '자활인프라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자활사업 자원인프라 기능 일원화'가 세부 추진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6개소(강원, 경북, 대전, 부산, 전남, 충남) 및 자활연수원의 운영주체가 (재)중앙자활센터로 일부 위탁 운영되고 있다. 통합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 광역자활센터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대전, 부산, 전남, 강원 광역자활센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S P E C I A L



01. 대전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201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신규 광역자활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전지역 자활센터는 현재 5곳으로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이다.

02. 대전광역자활센터의 모토(신조)

'사람이 희망인 자활은 행복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자활 참여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의 150만 시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03. 대전광역자활센터의 지금까지의 운영 등에 있어 자랑스러운 부분

첫째, 운영위원회·프로보노·서포터즈·자원봉사자·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지원,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주인의식이다. 둘째로, '재미나'라는 브랜드를 통한 재미나 체험학습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 기획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한 주거복지, 주거환경사업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2017년 3월 당사자 조직으로 대전자활기업협회가 만들어진 것을 들 수 있다.



04. 중앙자활센터의 위탁운영을 받게된 이후,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운영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위탁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초기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광역자활센터의 지역특성과 자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운영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을 볼 때 이는 사회 복지쪽에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과제는 6개 광역이 몇 달 사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센터 간 지역 편차 해소와 서비스 상향 평준화, 업무지원체계,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기능강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 운영에 있다.

05. 중앙자활센터에 바라는 점

6개 광역자활센터 업무, 운영, 사업에 대한 매뉴얼 작업,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에 속한 모든 지역, 사업장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와 인프라 안에서의 인적교류가 되어져야 진정한 결합이라고 생각된다.

06. 대전광역시자활센터의 앞으로의 목표

대전광역시자활센터는 만 3년을 지나 이제 2단계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자활사업의 지역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현장지원시스템 구축과 팀 중심의 권한부여, 다양한 서브그룹 활성화 및 자활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자활사업의 주인은 대전 150만 시민이라고 여겨진다. 기존 700명 이상의 자활프렌즈 외에 더 많은 자활의 친구들을 만들어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자 한다.



Epilogue



자활은 '탈빈곤 사다리'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가난을 뛰어넘는 사다리,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자활'은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의 또 다른 친구이고, 일을 통해서 자립함으로써 근본적인 삶의 희망을 제시해준다.

01. 부산광역시자활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산광역시자활센터는 2008년 5월 1일 개소하였고, 직원 12명이 함께 땀과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취·창업 지원, 광역 규모화 사업추진, 전문적·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한부모 여성 가장 창업지원사업’, 부산시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

02. 부산광역시자활센터의 모토(신조)

부산광역시자활센터는 ‘우리는 부산다움 자활의 핵심리더가 된다’ 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부산다움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다움 자활사업’이란 부산 지역의 특성과 역동성을 살려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자활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이다. 부산은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살려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에 경쟁력 있는 자활·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참여자 모두가 탈수급하여 삶의 질이 한층 발전하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03. 부산광역시자활센터의 지금까지의 운영 등에 있어 자랑스러운 부분

광역시자활센터가 개소한지 벌써 10년이 된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니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자활사업의 어려움과 활성화를 위해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자활지원사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커피 자활사업 ‘가온비’의 광역 규모화, 한부모여성 가장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과정들의 성과를 보여주듯 저희 센터가 전국 광역 평가에서 2015년 평가에 이어 2016년까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단순히 저희 센터만의 결과가 아니라 부산지역자활센터들과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낸 성과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중앙자활센터의 위탁운영을 받게된 이후, 부산광역시자활센터 운영 등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04. 위탁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중앙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이 된 후 새로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 개편과 스마트한 조직을 위하여 기획경영부, 사업지원부, 자립지원부 3개 부서로의 조직 정비로 직원 역량과 조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직 중앙자활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



으로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5. 중앙자활센터에 바라는 점

중앙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자활정책과 제도에 있어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와의 네트워크와 소통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보건복지부도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상호 간 더욱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06. 부산광역에 속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과 해결방안

지역자활센터는 평가시스템에 의해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자활은 새롭게 시도하는 도전정신이 필요한데 아예 그러한 동력이 저하되는 느낌이라 안타깝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자활 참여자 수도 줄어들고 있어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기에는 힘든 것 같다.

우선 중앙의 국고지원비가 올라가야 지방비도 오를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기업 운영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능동적으로 운영·지원 할 수 있는 자활기업 전담 전문가 및 실무자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에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07.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산 지역의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 지역의 자활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함께하는 소통기구를 만들고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자활사업의 현실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과 광역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08. 부산광역자활센터의 앞으로의 목표

부산광역자활센터의 '부산다움 자활! 희망찬 미래! 를 기본 바탕으로 부산다움 자활사업 확대추진 및 자활·자립 기반 강화로 광역 규모화사업 추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자활 일자리 확대,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로 부산의 자활사업을 보다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01. 전남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전남광역자활센터는 2014년 현재 14개 광역자활센터 중 제일 늦게 지정된 막내 기관이다. 당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가 모법인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중앙자활센터로 법인이 전환되었다.
사무실은 전남사회복지회관 건물에 입주하여 있으며, 주거복지 광역자활기업과 분식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광역자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02. 전남광역자활센터의 모토(신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하는 조직,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의 성장지원, 전문적인 자활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핵심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활사업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03. 전남광역자활센터의 지금까지의 운영 등에 있어 자랑스러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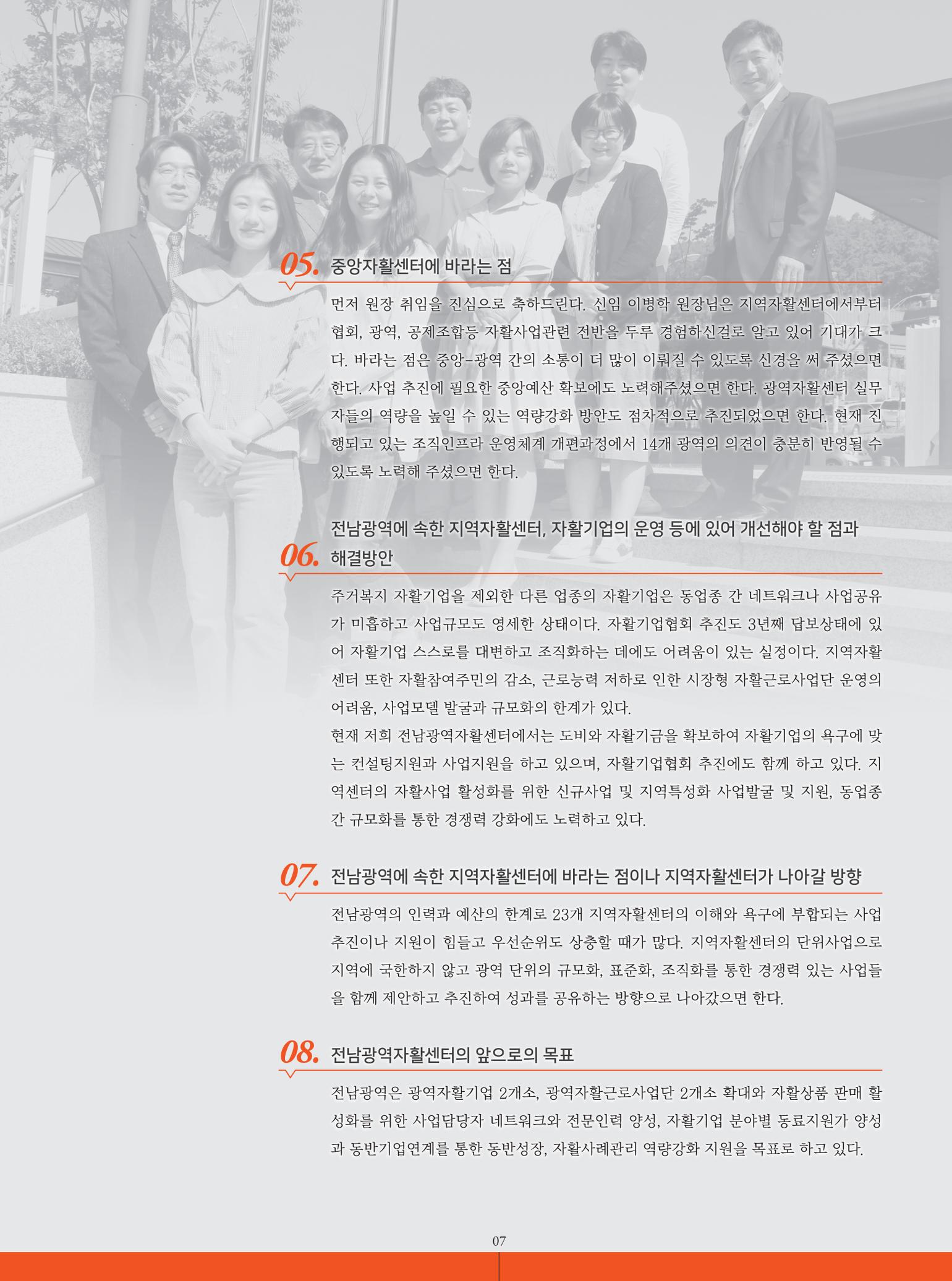
14개의 광역자활센터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하였지만 23개 전남지역자활센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광역자활센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촌지역으로서 자활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영농사업발굴과 분식, 카페 등의 업종 규모화에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사례관리 특화사업으로 진행된 희망플랜금융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참여지역자활센터인 장흥,영광이 작년 복지부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컨퍼런스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중앙자활센터의 위탁운영을 받게된 이후, 전남광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있어

04.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위탁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표준운영규정 마련, 회계업무 통일화 추진, 중앙자활센터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사업수행 측면에서는 법인전환으로 인해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태도가 지역자활센터와 정서적으로 떨어진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법인 전환 초창기여서 업무추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총무회계 담당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





05. 중앙자활센터에 바라는 점

먼저 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이병학 원장님은 지역자활센터에서부터 협회, 광역, 공제조합등 자활사업관련 전반을 두루 경험하신걸로 알고 있어 기대가 크다. 바라는 점은 중앙-광역 간의 소통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앙예산 확보에도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광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도 점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인프라 운영체계 개편과정에서 14개 광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전남광역에 속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과

06. 해결방안

주거복지 자활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자활기업은 동업종 간 네트워크나 사업공유가 미흡하고 사업규모도 영세한 상태이다. 자활기업협회 추진도 3년째 답보상태에 있어 자활기업 스스로를 대변하고 조직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지역자활센터 또한 자활참여주민의 감소,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의 어려움, 사업모델 발굴과 규모화의 한계가 있다.

현재 저희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도비와 자활기금을 확보하여 자활기업의 욕구에 맞는 컨설팅지원과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활기업협회 추진에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및 지역특성화 사업발굴 및 지원, 동업종 간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07. 전남광역에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지역자활센터가 나아갈 방향

전남광역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23개 지역자활센터의 이해와 욕구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이나 지원이 힘들고 우선순위도 상충할 때가 많다. 지역자활센터의 단위사업으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광역 단위의 규모화, 표준화,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함께 제안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08. 전남광역자활센터의 앞으로의 목표

전남광역은 광역자활기업 2개소, 광역자활근로사업단 2개소 확대와 자활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담당자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양성, 자활기업 분야별 동료지원가 양성 과 동반기업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자활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01. 강원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2008년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자활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지역자활센터협회가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지금의 광역자활센터가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광역자활센터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빈곤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 주체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강원광역자활센터의 모토(신조)

‘사람, 일 그리고 희망중심’, 자활현장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강원광역, 지역의 맞춤, 참여자의 맞춤, 실무자의 맞춤으로 내실을 기하는 사업 모토로 강원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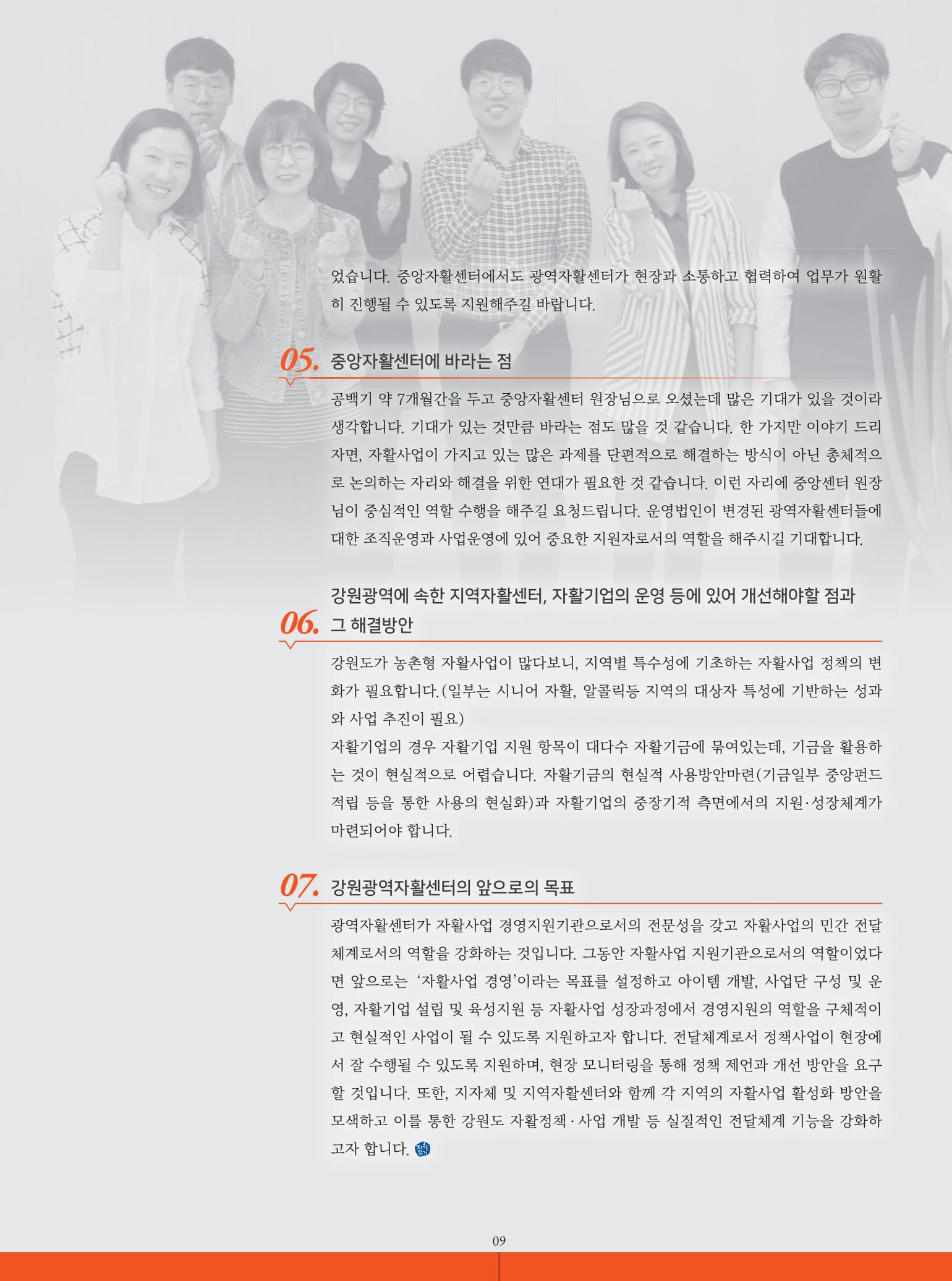
03. 강원광역자활센터의 지금까지의 운영 등에 있어 자랑스러운 부분

복지부 평가 6년 연속 우수 광역자활센터 달성(~2017)과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팀워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조회 운영 활성화, 사업, 조직 등 전체적인 운영체계가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것과 외부환경과 정책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노력(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감소로 인한 프로그램, 사업등 개발, 자활기업 조직화 지원사업 등)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또는 지역, 다양한 기관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참여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04. 중양자활센터의 위탁운영을 받게된 이후, 강원광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위탁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은 실무자 개인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복지 지원(복지포인트)을 받아 삶이 조금 더 윤택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개발, 건강지원 등 작은것이지만 지원을 받게 되어 센터 운영비로 해결 못하는 직원복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좋아요. 업무적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양자활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한 영역에서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지역자활센터와 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조금 더 잘 만들어야 하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지역자활센터를 라운딩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되는 점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도 광역자활센터가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05. 중앙자활센터에 바라는 점

공백기 약 7개월간을 두고 중앙자활센터 원장님으로 오셨는데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가 있는 것만큼 바라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와 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중앙센터 원장님이 중심적인 역할 수행을 해주길 요청드립니다. 운영법인이 변경된 광역자활센터들에 대한 조직운영과 사업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강원광역에 속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해야할 점과

06. 그 해결방안

강원도가 농촌형 자활사업이 많다보니, 지역별 특수성에 기초하는 자활사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일부는 시니어 자활, 알콜릭등 지역의 대상자 특성에 기반하는 성과와 사업 추진이 필요)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지원 항목이 대다수 자활기금에 묶여있는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활기금의 현실적 사용방안마련(기금일부 중앙펀드 적립 등을 통한 사용의 현실화)과 자활기업의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지원·성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07. 강원광역자활센터의 앞으로의 목표

광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경영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자활사업의 민간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활사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자활사업 경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템 개발,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자활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 자활사업 성장과정에서 경영지원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달체계로서 정책사업이 현장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각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강원도 자활정책·사업 개발 등 실질적인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상담과 복지에 특화된 자활 사업의 동업자

김해지역자활센터

김해 경전철을 타고 시내를 한참을 둘러보며 가는 중에 김해지역자활센터가 차창 밖으로 한눈에 들어왔다. 반듯하게 지어진 김해지역자활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김호상 실장님과 각 사업부 과장님들이 맞이해 주셨다.





1 인터뷰 중인 김호상실장과 각 사업부 과장(좌로부터 김호상실장, 심혜정과장, 허미영과장, 윤주영과장)
 2 김해시여성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이든카페
 3 김해여객터미널 내 관광마켓



2



3

김해지역자활센터만의 특징

김해지역자활센터는 멋지게 지어진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건물 외관에는 ‘김해지역자활센터’라는 상호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그렇다. 자활을 위한 독립된 건물로서 김해시에서 16억 원, 경상남도에서 1억 원 지원받아 2014년에 신축하였고, 운영 사무실을 비롯하여 강의실과 회의실, 자활 사업장과 지역 주민들이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이자 판매처가 있었다. 옥상에는 도시양봉을 할 수 있도록 벌통이 마련되어 있었다. 김해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68-2호로 지정받아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개 사업에 230여명의 자활사업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 운영법인은 인제대학교이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운영자문을 받아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상담과 복지에 특화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문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자활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해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과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례관리과는 Gateway전담관리자, 자활사례관리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자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업단 운영은 사업운영과를 구성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자활센터와 다른 점은 자활센터 실무자를 ‘팀장’이라 하지 않고, 현장의 주민대표에게 ‘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단의 주인은 자활사업

참여주민이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참여주민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는 자활사업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기능해달라는 바람도 담겨있었다.

지자체는 지원기관인 동시에 사업 파트너

김해지역자활센터는 보장기관(지자체)과의 관계가 친밀하고도 아주 역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보장기관의 역할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자금이 잘 집행되는지 지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김해시는 보장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동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활 사업의 아이템을 먼저 구상하여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장소 임대를 무상이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활사업비 절감은 물론 고객 확보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현재도 김해시의 공공기관 5개소 내 ‘이든카페’와 김해버스터미널 내 ‘관광마켓’ 등이 입점하여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



센터 옥상 양봉장



김해지역자활센터의 대표적인 사업

김해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바로 도시양봉 사업이다. 도시 지역인 김해시의 특성상 영농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다.

김호상 실장은 “영농사업의 수익 다변화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센터 옥상에 벌통 8개를 가져다놓으며 시작되었어요. 도시에서 양봉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어 주변에서는 일부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2016년 가을 첫 채밀(꿀을 뽑는 작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공적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꿀을 유리병에 담아 팔았으나, 2017년 경남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아 <도시네꿀>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패키지 디자인과 제작을 통해 현재의 깔끔한 포장제품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현재도 인제대학교 평생학습원을 통해 도시양봉교육을 꾸준히 받아 양봉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으며 김해시 다른 지역에서 제2호 양봉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소개할 사업은 ‘할미누룽지’ 사업단이다. 2016년 즈음 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면서 많은 인력이 해당 사업장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미약한 참여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자활사업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점이 있었다. 만들기 쉬우면서 판로도 괜찮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두문불출하던 차에 눈에 띈 아이템이 ‘누룽지’였다. 누룽지는 간식으로든 먹을 수 있고, 식사대용으로도 충분하고,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채택하고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해 햅쌀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1회 섭취 분량씩만을 포장한 백미, 현미, 잡곡 3종 소포장 단품과 종류별로 12개가 들어간 선물세트 1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품개발을 마치고 <할미누룽지>라는 브랜드명을 정하고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누룽지 생산에 필요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 및 자활매장에 납품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 내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와 <나들가게>에 입점을 논의 중에 있다.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통신판매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센터 2층에서 직접 생산하는 '할미누룽지'



MINI INTERVIEW

“작년부터 누룽지를 만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김해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 많은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진 촬영에 적잖이 당황하시면서 소녀처럼 활짝 웃으시며 촬영에 도움을 주셨다. 함께 일하시는 분 중 최춘식님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소개할 사업은 ‘행복한 가게’이다. 이미 잘 알려진 ‘아름다운 가게’와 비슷한 콘셉트의 중고상품 매장이다. ‘행복한 가게’는 경남지역 내 자활기업 중 중고상품 매장에 붙여진 공동 브랜드로서 경남 지역에 약 10여 개의 ‘행복한 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경남 지역 내의 사업이다 보니 매출액 전부가 경상남도 지역 안에 모두 환원되고 사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다른 중고매장의 경우 매출액의 일부가 타 지역에 있는 본사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반하여 ‘행복한 가게’는 매출액 전액이 경남 지역으로 환원되어 지역 상생 사업의 좋은 예로 보여진다. ‘행복한 가게’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출범하였으나, 지금은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1호점과 2호점을 합치면 7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취약계층에서 채용하고 있다.

‘행복한 가게’ 1, 2호점의 박형구 대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을 하다 탈수급 후 현재는 ‘행복한 가게’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사업 운영 경험이 있어, 운영 능력과 직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김호상 실장은 김해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업장과 전시장을 소개해 주었다. 이동하는 내내 사업장과 전시장의 특징과 자랑거리를 알려 주었다. 조금이라도 더 소개하고 싶은 책임자의 마음으로 생각된다. 김해지역자활센터의 헌신적인 노력과 김해시의 지원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탈수급의 꿈을 이루어가길 함께 기대해 본다. 

1 ‘행복한 가게’ 내부
2 ‘행복한 가게’ 1, 2호점의 박형구대표



1

2



자활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숙명

군산지역자활센터 쌍쌍자전거 사업단

푸르른 5월,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오규남 팀장님과 최기혁 실장님을 만났다. 쌍쌍자전거 사업단(고군산군도 자전거 유료대여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쌍쌍자전거 사업단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소개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한 들어보고자 한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새로운 대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팀장님, 실장님과의 인터뷰를 간단한 Q&A 로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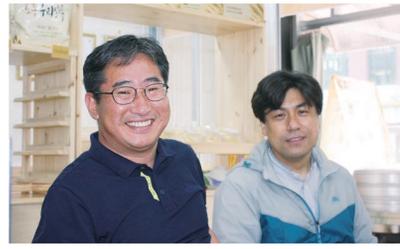
Q 쌍쌍자전거 사업단(고군산군도 자전거 유료대여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요.

A 저희 센터에는 남자 참여주민들이 조금 많은데 그분들이 하실만한 사업을 찾다가 폐자전거 리폼사업을 위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하고 리폼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법적인 사항이나 아파트 관리실의 동의 등 여러 이유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자체(군산시 건설과)에서 고군산군도 관광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전거 유료대여사업 제안을 받았고 인력과 사업비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어렵사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쌍쌍자전거 사업단에 대한 간단한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섬이었던 신시도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되면서 1차로 지난해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다리를 놓았고 올해는 선유도와 장자도까지 다리를 놓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되어 자그마한 섬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하였고,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하여 대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여는 기본 3시간에 3천원으로 30분 단위로 500원의 추가요금이 있으며, 1일 최대 5천원의 요금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㉓ **쌍쌍자전거 사업단의 지금까지의 운영은 어떠하신지. 운영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나 보람되셨던 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지요.**

㉔ 처음 자전거대여소를 개설하였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신시도항 임시주차장에 햇빛만 조금 겨우 차단할 수 있는 천막을 놓고 자전거 대여를 했습니다. 참여주민도 다 모집하지 못한 채 대여사업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어 센터 실무자들까지 모두 투입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따가운 햇볕, 먼지와 바닷바람 속에서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고 힘들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일부 고객들의 함부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주민들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활의 꿈을 안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계시면서 이젠 베테랑이 되신 참여주민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뿌듯합니다. 2016년 추석 즈음에 MBC 추석특집프로그램에서 저희 대여소가 소개되었는데, 방송인 박명수, 가수 홍진영 등이 와서 저희 자전거를 대여하여 선유도까지 타고 가는 장면들이 재밌게 그려지고 아름답게 방송되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㉔ **쌍쌍자전거 사업단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지요.**

㉔ 2016년도 7월에 대여사업을 시작하여 거의 5천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2017년도에 자전거 대여소를 제대로 짓고 자전거 대수도 늘렸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무허가로 자전거, 퀵보드 및 스쿠터를 대여해주는 업자들이 더 좋은 장소를 선점하여 사업을 하면서 규정대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 대여소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겨우 2천만원 조금 넘는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언론에서 고군산군도 무허가 영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런 결과로 지자체에서 고군산군도의 무허가 대여사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선유도 내에 제2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7월말 정도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㉓ **쌍쌍자전거 사업단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떠하신지요.**

㉔ 당연히 자활사업단인만큼 창업자금을 많이 마련하여 참여주민들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하는 제2자전거 대여소에서는 지난 해 군산지역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기증받은 어린이행복자전거로 대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출액의 20%를 군산시어린이행복기금으로 출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규남 팀장님에게 자활에 대해 물었다. “자활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숙명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나 아닌 타인에게 제 작은 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지요. 자활을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의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칼뱅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했듯이, 더욱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여야 힘들고 어려운 자활에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산지역자활센터 쌍쌍자전거사업단 오규남 팀장, 최기혁 실장
T. 063-463-9742 / 063-463-9731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곳 다시 꿈꿀수 있는 기회를 준 곳

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전국빨래자랑 이원자, 백사례 공동대표

화창한 봄날, 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이종근 팀장과 함께 '전국빨래자랑' 이원자, 백사례 공동대표를 만났다. 앞으로 '전국빨래자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속에서 더 많은 꿈들이 솟아나기를 소망한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전국빨래자랑'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라며, 삶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곳에서의 인터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전국빨래자랑의 이원자(좌), 백사례(우) 대표



1



2

1 운동화를 점검하는 이원자 대표
2 이원자(우), 백사레(좌) 대표

본 사례는 우리 사회 어려운 가정의 대표사례이다.
어린 나이의 자녀와 부모 등의 경제적 어려움,
병 치료가 필요한 가구원을 데리고 쉽게
자활·자립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들이 지역자활센터 팀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빨래방에 오게 된 것은
새롭게 희망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01

이원자 대표는 처음 영주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작한 일은 복지시설 생활과 도우미 일이셨는데 어떠했는지와 두 번째로 간병 사업단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보람되고 어떠한 점이 힘들었나요?

•• **이원자 대표** 시설 도우미를 하면서 심적인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닥치는대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성실함으로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간병 사업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간병 사업단에서는 병원도우미나 유료 간병실에 투입되어 간병 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보람은 두 배로 느껴지는 매력이 있는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타 간병사들보다 어린 연령(30대)으로 융통성이나 환자 대하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02

2014년 6월에 운동화 세탁 사업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매장은 언제 처음 오픈하셨고, 월 매출은 어느 정도이셨고, 사업단에서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셨나요?

•• **이원자 대표** 새로 시작하는 사업단에 담당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현대아파트 단

“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절실함으로 일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먼 곳에 있지 않다. ”



지 근처에 매장 오픈을 하였지만 월 매출은 50만원 ~100만원 정도였으며 미흡한 교육으로 운동화 세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백사레 대표** 운동화 사업단에서는 운동화만 빨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쉽게 일을 하려고 했지만 기술도 있어야 하고 다른 업무 능력 또한 많이 필요했고, 그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 • **백사레 대표** 저는 운동화만 빨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자는 매입과 매출, 영업기획, 영업방향, 영업매장운영 방법 등 여러가지를 기획해주었고, 작은 것 하나 하나 발로 뛰어다니며 영업매장을 지정해서 이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밥만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활이란 사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 담당선생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03

2015년 9월 새로운 담당자를 만나셨는데, 담당자와의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사업체 운영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셨다는데,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와 사업담당자가 매출이 적어 지금 매출로는 창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 • **이원자 대표** 매주 회의를 통해 일에 대한 궁금증이나 미흡한 것들도 의논하고 사소한 문제나 매출에 따른 향후 발전성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회의함으로써 사업체로 나갈 방향의 기본을 많이 다져놓았던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사업단을 이룰 것이라는 열정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창업이 현 매출로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04

1년쯤 지났을 때 매출 상승과 더불어 담당자가 적당한 자리를 찾았다며 이사할 곳을 보여주고, 2017년 2월, 새로운 매장으로 이사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떠하셨고 새롭게 단장한 매장에서의 매출 등은 어떠하셨고 매출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 **이원자 대표** 2차 교육도 실시하고 업그레이드된 세탁 기술로 1년 동안 매출은 상승하였고 담당선생님이 창업할 곳을 구석구석 수 개월 동안 다니면서 알아봐준 결과 지금의 택지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상승은 이사하면서 배로 이뤄졌습니다. 인근이 원룸단지이기도 하고 택지 특성상 젊은 연령층이 많아 세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가격 또한 싸고 타 업소보다 깨끗하며 영주에서 당일 세탁이라는 유일한 장점이 매출 상승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 백사레 대표 선생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찾아주시고 이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들 불경기라고 하는데 우리 빨래방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신뢰와 가격경쟁력, 담당선생님의 영업방식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5

2017년 7월 1일,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습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은 어떠하신지요. 앞으로 전국빨래자랑의 목표는 무엇인지.

•• 이원자 대표 창업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으로 벅찼고, 지금까지 늘 하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어렵게 창업을 이뤘지만 주위에 도움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저의 목표는 월 매출 1,000만원이고 도와주신 만큼 남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을 사는게 목표입니다.

•• 백사레 대표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선생님은 월 매출 1,000만원을 바라보자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원자 대표는 '자활'이 '45세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곳, 자활의 기회를 주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 곳'이라고 한다. 자활은 어려운 분들을 자립시켜 드리는 곳으로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립의 발판이 되어주는 곳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절실함으로 일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고 말한다. 백사레 대표는 '자활'이 '나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며 기회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

이원자, 백사레 대표와의 인터뷰는 행복하고도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자활'을 통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신 두 대표를 응원한다. 담당자인 이중근 팀장, 이원자, 백사레 대표의 조합은 조화로우면서도 서로에게 도움과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였다. 이원자, 백사레 대표의 가족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삶에서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두 대표와 업체직원들,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국빨래자랑'은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여겨진다. 🇰🇷

전국빨래자랑

경북 영주시 대학로 240번길 20 T. 054) 633-7990

한결레 한결레 정성스럽게 손으로 세탁합니다.

당일세탁 가능(10시 이전에 맡겨주시면 당일배송가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박준홍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봄비가 내리는 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실에서 박준홍 협회장을 만났다. 249개 지역자활센터가 잘 소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대한민국 빈곤사업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박준홍 협회장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협회장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터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01

**자활사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고,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이 되시
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요.**

▪ 2000년 1월부터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덕진지역자활센터 모법인)에서 장애인들과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자활을 알게 되었다. 2001년 2월 모법인에서 덕진지역자활센터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고 전북지부 사무국장, 실장을 거쳐 센터장이 되었다. 기관에 어려움이 생겨 예상하지 않았는데 급박하게 센터장이 되었다.

02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힘드셨던 점이나 보람되셨던
점,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고,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장으로 선출되
셨는데, 어떻게 출마하시게 되셨고, 그 과정이 어떠하셨는지요.**

▪ 2010년 자활기업으로 나간 덕진환경에서 산재로 사람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다. 유족 측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당시 협회장 이병학)가 주도하여 모금을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500만원 정도를 다시 협회에 후원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제11대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10대까지 협회장님들께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다. 하지만 자활이 소통하지 않고 지역별로 골이 깊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활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과 그동안 자활에서 받았던 고마움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선거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선거였다. 대부분의 지부를 방문했고 필요하면 개별기관도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고 모든 센터장님들께 3번 이상 전화해서 지지를 부탁하였다.



03

협회장이 되신 이후, 변화나 힘들셨던 점, 보람되셨던 점,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 협회장이 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제가 속한 덕진지역 자활센터에 자주 가지 못하고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늘 실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16개 지부의 정기총회와 협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도로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힘든 부분이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자활 종사자들과 참여주민들을 많이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자활을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 한국자활기업협회 창립총회의 가슴 벅찬 기억과 행사에서 자활을 대표해서 축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하다. 사회복지사는 업종과 지역을 넘어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연대를 통해 처우개선을 해결하고 자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04

지역자활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떠하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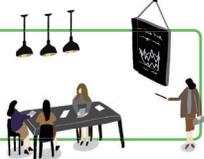
-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관도 있겠지만 함께 설득하고 토론해서 자활의 또 다른 길을 열어가야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가난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 249개 지역자활센터가 잘 소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대한민국 빈곤사업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준홍 협회장은 얼마 전 아내와 쭉을 캐서 쭉개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자활이 쭉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한다. 척박한 곳이지만 잘 자라고 어디를 가든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아프거나 배고플 때 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고, 자활도 그렇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박준홍 협회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 생각한다. 초창기에는 1%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면 해보았던 것이 자활이었다” 자활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돌봄과 주거복지, 청소, 재활용 등 사회적기업의 근간이 되는 많은 자활기업을 배출하였다. 한국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자활’이라고 단언한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참여주민들을 믿고 지역과 함께 자활을 해나간다면 다른 분야보다 보람을 많이 얻는 곳이 자활이라고 확신한다.

박준홍 협회장의 이야기처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자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더욱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가 가난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249개 지역자활센터가 잘 소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T. 02-324-1892





고맙습니다
THANK YOU

"박만호 센터장님이 스승이고, 멘토입니다."

안미숙 센터장(돌봄 사회 서비스 센터) - 박만호 센터장(삼척지역자활센터)



취재 당일 삼척 시내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박만호 센터장과의 만남에 앞서,

사연 신청의 주인공인 안미숙 씨(돌봄 사회 서비스 센터장)와 함께 깜짝 이벤트를 논의하고 있었다.

취재 기자가 먼저 들어가 박만호 센터장과 인사를 나누고 잠시 후 안미숙 씨가 들어오기로 한 계획은

박만호 센터장이 차를 준비하러 사무실을 나서는 바람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미숙씨를 발견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안미숙 씨를 만나 깜짝 놀라는 표정의 박만호 센터장의 표정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사무실 밖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너무나 반가워하신 박만호 센터장은

인터뷰 내내 기쁜 표정으로 안미숙 씨에 대한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깜짝 손님이 찾아오신다기에 내 머릿속에는 몇 명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내가 자활과 관련해서 쓴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서요.(웃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사람이 누굴까 머릿속에 그렸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안미숙 센터장이었어요.”

실제로 안미숙 센터장은 종종 박만호 센터장을 찾아 과거 자신을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박만호 센터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돌봄 사회 서비스 센터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할 사람으로 박만호 센터장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한다.

자활참여, 그리고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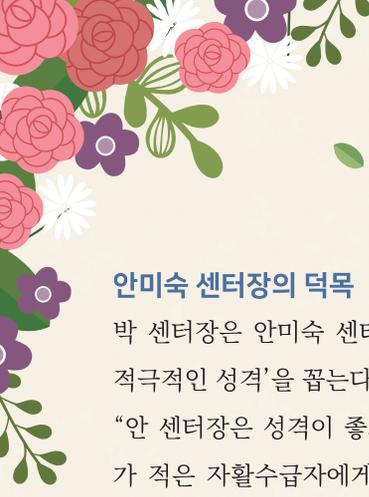
안미숙 센터장이 박만호 센터장을 만나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벌써 13년 전의 일이었다. 뜻하지 않게 가정이 해체되고 삼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던 안미숙 센터장은 새벽에는 신문배달, 늦은 저녁까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그러다보니 어린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큰 아이가 공부방을 가고 싶다고 해서 늦은 시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부방이 있을까 싶어 알아보던 차에 당시 삼척지역자활센터에 공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공부방은 지금의 센터가 있는 건물 3층에 있었는데 2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사무실이라 생각하고 들어간 그 곳이 바로 삼척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었다고 그날 늦게까지 일하고 계셨던 사람이 당시 박만호 실장이었던 것이다.

“공부방과 관련한 질문이 오고가던 중에 햇볕에 그늘린 제 얼굴을 보시고 어렴풋이 제 처지를 파악하셨던



모양이에요. 오랜 경험을 통한 박 센터장님의 직관적 판단이었지요. 공부방에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러 갔다가 자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취약계층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안미숙 센터장은 삼척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간병 사업을 제안 받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내가 실제로 제안 받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돌봄 대상자가 남성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짓눌려 있을 무렵 무엇보다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에 주저할 수가 없었다. 또한 안 센터장의 근면, 성실함과 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다. 간병 일을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다양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동 목욕 반장, 사업단 반장, 자활 참여자 대표, 강원도 자활센터 간병인 협회장 등 일반 참여자보다 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다가 2007년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면서 해당 사업을 전담 운영하게 되었다.



안미숙 센터장의 덕목

박 센터장은 안미숙 센터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매사 적극적인 성격’을 꼽는다.

“안 센터장은 성격이 좋고,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나이가 적은 자활수급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독려하는 편이에요. 일하면서 대학 학업과 병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미숙 센터장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인데, 현재 45명 정도 되는 직원을 두고 일하는 돌봄 서비스 센터장의 직을 맡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센터장의 특유의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상태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자 도전이다. 그러나 그런 도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지하는 박만호 센터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 센터장님은 제게 스승이고, 멘토입니다. 제게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주말이 있는 직장을 제안해 주셨고, 일을 할 때면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식과 직장 예절 등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할 때 힘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칭찬과 격려를 주셨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하시며 앞으로 더 나아가길 누구보다 기대해주셨고,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 했던가. 박만호 센터장 또한 만학도였다.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실무능력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전문가였다. 박만호 센터장은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에게 지속적인 공부와 자기 계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그런 노력으로 수급자로 입사하여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을 뿐더러 그 중 일부는 공무원 취업, 공공기관 취업에도 성공하여 탈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박만호 센터장의 통찰력

안미숙 센터장은 자신의 성공 뒤에는 박만호 센터장의 통찰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당시 상담을 하러 간 날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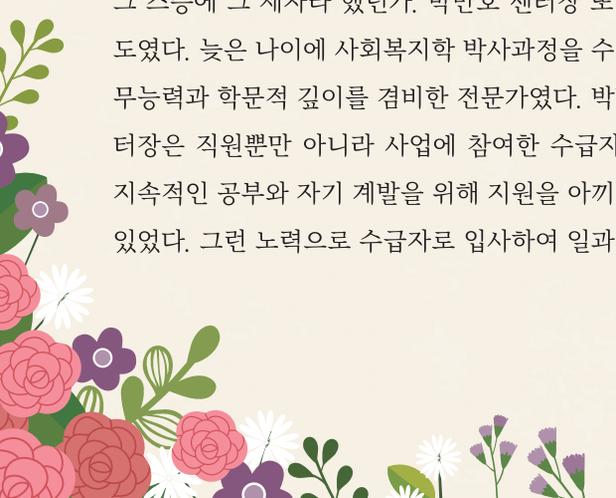
“불쌍했다기보다는 제 눈에는 ‘이 사람은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생긴 ‘감’이었지요. 실제로 다른 참여자 중에서 ‘저 사람은 실장급으로 키울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 역할을 하더라구요. 안 센터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예요. 요즘 제가 MBTI 성격유형 관련 공부를 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안미숙 센터장과 같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밑에서는 조직적이고 꼼꼼하며 그녀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중요성

박 센터장은 직원과 자활 참여자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는 안 센터장에게 영향을 미쳤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런 엄마를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어엿한 대학교 4학년, 고등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한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엄마’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내가 바뀌니 아이들도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박 센터장은 직원들은 물론 자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야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던 안 센터장을 치켜세우면서 이런 적극성이 안 센터장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돈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취약 대상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지원일 것이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금전적 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박 센터장님은 참여자가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직원과 참여자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배워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돌봄 센터를 운영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박만호 센터장이 안미숙 센터장에 있는 특별한 면을 강조하였다.

“안 센터장의 또 하나 큰 장점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

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미숙 센터장은 이러한 공을 박만호 센터장에게 돌리고 있다.

“이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면 박 센터장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때면 인생 선배로서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의논을 할 때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답게 해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박만호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헌신으로 삼척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박만호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 공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박만호 센터장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박만호 센터장은 내년 초에 삼척시 지원으로 새 센터 건물을 준공하게 되더라도 돌봄 사업장에 남아 돌봄제 공자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고 인재를 키우려는 그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더 많은 안미숙 센터장과 같은 인재들이 이 사회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자활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마운 마음을 자활읽기로 표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참여를 희망하는 분을 자활읽기가 찾아갑니다.

신청 문의 중앙자활센터 02.3415.6914



허브누리 사업단, 허브이야기

: <허브누리>는 생산기지의 거점으로 <허브이야기>는 판매기지의 거점으로

허브. 듣기만 해도 상큼함과 건강함이 느껴지는 단어이다. 이번호에서는 자활기업 허브이야기 오인숙 이사장과 강원원주 지역자활센터 김인식 실장을 만나고, 허브농장을 방문하여 허브누리사업단 식구들을 만나보았다.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시작과 생명, 생동감을 전해보고자 한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정신력과 의지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오인숙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간단한 Q&A로 소개하고자 한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정신력과 의지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강원원주지역자활센터 김인식 실장

<허브이야기> 오인숙 이사장

오인숙 이사장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지인의 우연한 소개로 원주지역 자활센터를 찾아가게 되었고, 자활사업 참여자로 출발하게 되었다.

있습니다. 허브이야기는 허브작물을 재배하여 허브차, 허브비누 등을 생산, 판매하고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㉔ **협동조합 허브이야기의 창업과정과 허브이야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㉔ 허브이야기, 허브누리 사업단의 운영 성과와 힘드셨던 점이나 보람되셨던 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A 자활센터 사업단의 참여자로 일하면서 경기지역 자활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표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센터에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자활기업의 출발을 하게 되

A 허브누리 사업단이 2016년도에 출발하여 첫해를 정착기라고 한다면 2017년도를 안정기, 2018년도를 도약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허브

에 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참여자들이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활사업단에서 어엿한 자활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굳혔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㉔ 허브누리 사업단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고 허브이야기는 노하우를 사업단에 재능기부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기술전수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㉕ <허브이야기>의 출발이 자활기업이다보니 항상 자활참여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판매량의 확장이 필요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활 참여 이전부터 허브에 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허브누리> 참여자들에게 수시로 현장실습과 교육으로 기술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㉖ 허브누리 사업단은 허브이야기를 통해 매입을 받고 차로 판매하라는 사업구조라고 들었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허브이야기, 허브누리 사업단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떠한지.

㉗ <허브이야기>에서는 허브차의 판매극대화를 위해서 현재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량도 같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허브이야기>로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브누리>는 생산기지의 거점으로 <허브이야기>는 판매기지의 거점으로 정착한다면 더없이 좋은 구조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국내외 시장개척으로 판매량의 극대화를 이룸으로써 자활 참여자들의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이익도 많이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실의에 빠진 참여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고 일어설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허브누리 사업단 식구들



강원원주지역자활센터 김인식 실장, <허브이야기> 오인숙 이사장, 광역자활센터방성환 차장(좌로부터)

오인숙 이사장은 자활센터를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친절 집이라고 참여자들에게 항상 말하고 다닌다. 자활센터와 자활센터 식구들은 오인숙 이사장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저함이 없이 손을 내밀어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인숙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정신력과 의지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숙 이사장은 아직 암으로 치료 중에도 걸모습으로는 전혀 아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자활기업 협회장으로서의 임무 또한 함께 하고 계신다. 허브누리 사업단의 이옥례 반장님과 오인숙 이사장님은 님은 꼴이었다. 두 분이 최고의 파트너였다. 아니, 지역자활센터의 김인식 실장님, 광역자활센터의 방성환 차장님까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였고, 응원군이였다. 허브누리 사업단과 허브이야기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허브차, 허브비누)
<http://www.허브이야기.kr/main/index> (11번가, 위메프에서도 구매가능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532-1 T. 070-7787-5238

위기 가정의 자녀 진로, 의식변화에 달려 있다.

어떤 가정인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가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가정에 경제적 위기나 부부 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녀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환경 속에 방치되는 아이들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
부모에게 자신의 속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진로코칭 전문가이자, 청소년 상담가인 이지현 대표의 조언을 들어본다.

내 인생의 위기

필자가 21살 때 IMF 위기가 왔다. 아버지는 수입 의류 사업을 했는데 결국 문을 닫았다. 그 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에 불이나 돈을 투자해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또 불이 났다. 결국 아버지의 사업은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당장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했다. 햄버거 가게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전부인 나는 이모부가 근무하는 강원도에 위치한 용평리조트에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혼자 그곳에서 생활했다.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교무실에 불려가는 일이 잦았고 대학입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많이 방황했다.

나는 용평리조트에서 프런트의 일, 특산물 가게의 경리 등의 일을 하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경리가 아닌 골프장의 캐디를 지원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골프에 대한 공부를 했고 필기시험을 봤다. 캐디 시험을 합격한 뒤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을 때까지 6개월 정도 그 일을 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5시까지 손님과 라운딩 갈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직원 숙소에 머물고 있었기에 다행히 출근 시간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용평리조트 나인 홀 골프장은 경사가 급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손님의 골프백을 가지고 손님의 라운딩을 돕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많은 체력을 요구했다. 한 번 라운딩을 돌고 오면 온몸이 땀범벅이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학 졸업은 점점 늦어졌고 부모님은 내가 28살 때 결국 이혼을 하셨다.



“
 부모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자녀들 또한 달라진다.
 ”

여전히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부도, 가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등 20대 초반 암벽등반 같은 삶을 살았고 극복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단지 마음의 이해를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진정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고 그 시간을 잘 극복해 가길 누구보다 바라기 때문이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을 찾아서

<10대를 위한 공부 습관의 힘>을 쓴 작가이자 청소년 전문가인 필자는 어려움에 봉착한 가정의 청소년을 종종 만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다. 아버지의 실업으로 늘 경제적 어려움이 악순환이었고 학원 강사를 하며 거의 생계를 책임지는 듯한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 사이에 정서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등을 공감하며 코칭을 해 줬다. 부부의 문제가 깊었기에 가정 상담이 진행됐다. 첫째 아들은 늘 가출을 할 거라는 말을 자주 했고 부모와 싸움이 잦았다. 부부 또한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

필자와 그 가정의 자녀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필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늘 내 길을 찾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으며 28세는 꿈을 이

루기 위해 서울을 향했다. 빅터 에밀 플랭클*이 했던 말처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그것에 대한 태도는 정할 수 있다. 필자는 어려운 환경이었고 친구들

보다 모든 게 느렸지만 돈이 없다고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필자가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준다. 부모에게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자신과 가족의 올바른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축진제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자녀들 또한 달라진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부모가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하며 그 시련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시련은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의식 변화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은 계속 달라진다. 그때마다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은 더 악화된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식변화이다. 삶의 시련과 어려움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시련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배우는 과정이 된다.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가고 더 멋지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어려움과 시련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보이고 가족들의 아픔도 보인다.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시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힘도 생긴다. 그리고 멋진 날개를 달아줄 가슴 뛰는 꿈도 발견한다. 필자도 그랬듯이 당신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을 가슴 깊이 응원한다. 🙏

* 빅터 에밀 플랭클

‘인간의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그것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라고 했다. 그는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강제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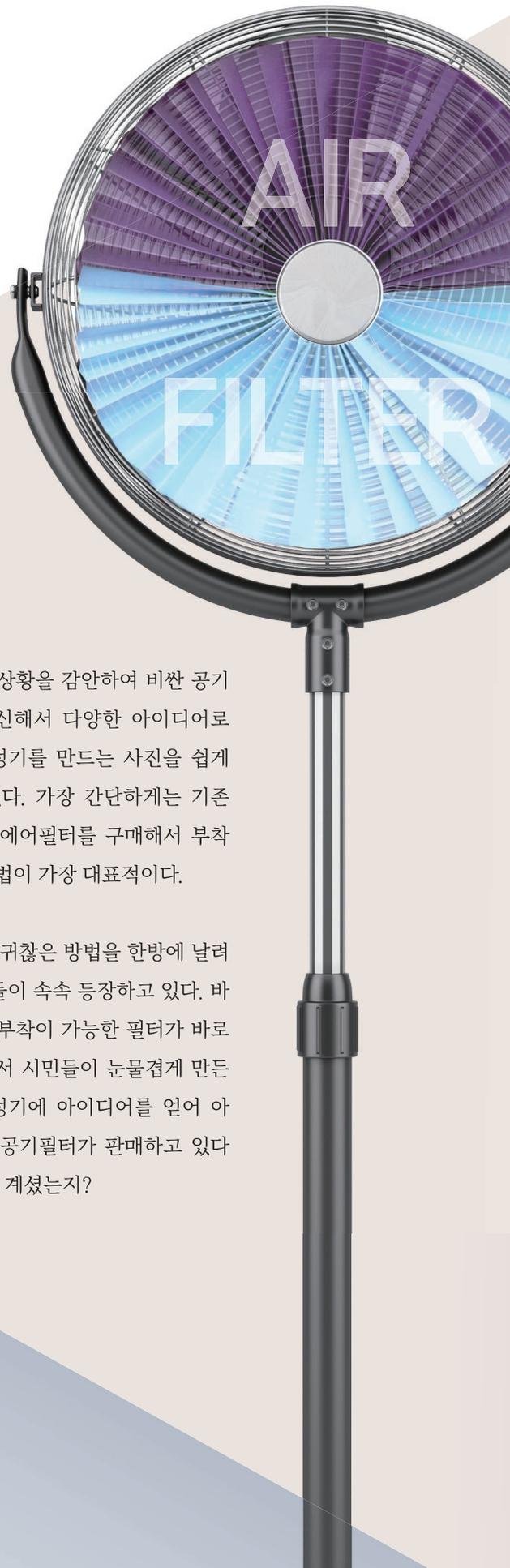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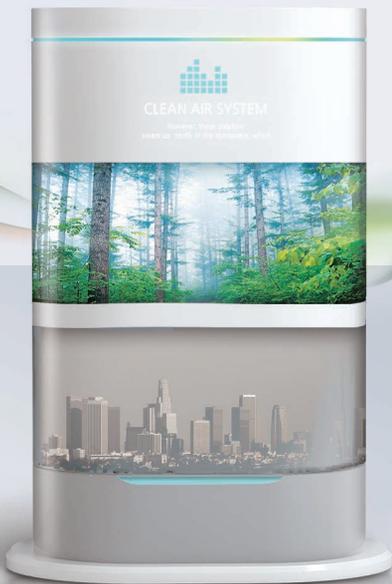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슬기로운 안방생활

실록의 계절 5월.
새싹과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답게 외출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지만,
우리 시선 앞에는 희뿌연 연기 같은 미세먼지가 앞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안방생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대한
민국 국민들의 생활모습을 공개한다.

현대사회에서 공기청정기는 에어컨이나 냉
장고처럼 가정에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이나, 집안에서 요리
를 할 때면 절실히 사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
키는 제품이다. 가격대는 20만 원대부터 100
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다. 역시 비용이 부담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싼 공기
청정기를 대신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DIY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기존
선풍기 위에 에어필터를 구매해서 부착
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귀찮은 방법을 한방에 날려
버리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바
로 선풍기에 부착이 가능한 필터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시민들이 눈물겹게 만든
DIY 공기청정기에 아이디어를 얻어 아
예 선풍기용 공기필터가 판매하고 있다
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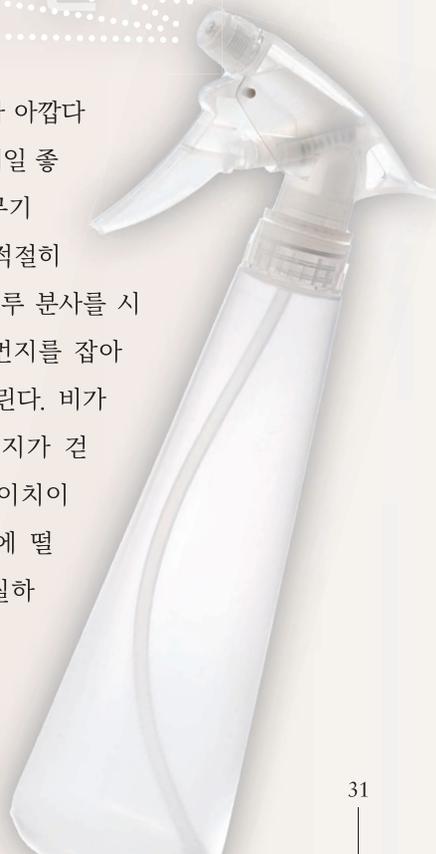


여기에 하나 더. 아예 창문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바람의 미세먼지를 거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도 있다. 일명 창문 부착형 공기 필터가 바로 그 주인공 되시겠다.

1만 원대에서부터 10만 원대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단점이 있다면, 필터를 설치한 부분은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어디냐 조금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데.

식초 + 물

필터를 살 돈조차 아깝다는 분들을 위한 제일 좋은 방법 하나. 분무기에 물과 식초를 적절히 섞어 공중에 골고루 분사를 시킨다. 물방울이 먼지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비가 오고나면 미세먼지가 걷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걸레질하여 닦아내면 끝.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바깥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스크이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이 미세먼지로부터 나의 호흡기를 지킬 수 있다.

2017년 12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1회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사 결과 공산품 마스크(일반 마스크)는 별도의 성능 기준도 없으며, 분진포집효율이 평균 46%로 나타나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 장에 1~2백원하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 바로 보건용 마스크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 등으로 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관리되는 제품이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 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사람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μ m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μ m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미세먼지의 근본을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애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자살유가족

다양한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는 경우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삶에서 크나큰 고통의 기억이 될 것이다.
 이별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고인의 사망 원인을
 쉽사리 밝히지 못하고 자유롭게 애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살유가족이 그러하다.

“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희망을 느낄 권리가 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 Jeffrey Jackson 자살자 가족의 권리장전 중에서 -

”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현주소

OECD 국가 중 수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살사망률은 몇 년째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 자료인 2016년도의 자살률은 여전히 1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변의 자살사망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6명 정도 된다고 한다. 자살률 1위인 지금, 매년 약 8만 명씩 발생하는 유가족들은 모두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온전한 애도조차 하지 못하는 자살유가족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살유가족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애도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다. 충분히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과 장소는 장례식장이다. 그러나 자살유가족은 이러한 애도의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례식에서조차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음껏 애도할 수가 없다. 자살로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드러내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어 온전한 애도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애도의 과정을 온전히 겪지 못하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슬픔에 잠겨있기도 하고, 신체적인 질병 또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혼란스러움, 분노, 슬픔, 두려움, 아픔 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이러한 감정을 다른 가족들과 표현할 때 같은 슬픔을 경험한 부부 또는 형제, 자녀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군가의 죽음은 내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비난, 자신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한 원망감 등 너무나 다양한 감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며 하루하루 견디어 나간다. 마치 나에겐 행복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제대로 웃을 수도, 삶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 유가족의 삶이다.

자살유가족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은?

PTSD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그 외에도 불안장애, 우울증을 많이 겪지만 유가족이 경험하는 충격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많은 자살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자살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아 수년이 지나도 그날의 잔상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수면문제, 섭식문제 등 급성의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치료가 시급하다.

- ✦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 불안장애
- ✦ 우울증
- ✦ 수면문제
- ✦ 섭식문제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살유가족의 회복 지원책

자살유가족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애도 상담을 받고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은 나의 책임이다.’ 등의 잘못된 인지를 바꾸기 위해 인지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각 지역의 자살유가족 지원기관에서 진행되는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같은 고통을 경험한 유가족 분들과 대처방법을 나누고 위로와 공감을 나눌 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인을 보내고 수면문제, 지속되는 우울감, 반복적인 자살생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자살유가족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심리검사비, 치료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유가족이 고인을 회상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부검(따뜻한 작별)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자살유가족을 돕기 위해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말고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

자살유가족 지원 기관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 1577-0199
중앙심리부검센터 www.psyauto.or.kr ☎ 02)555-1095~8
한국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 ☎ 1588-9191

향기 나는 라디오



오전 7시.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피를 내리는 것이다.

목이 길게 휘어진 작은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는다.

어제의 고단함과 오늘 아침의 피곤함을 잘 볶아진 커피와 함께 내린다.

쓴 맛 저편에 숨어있는 속 깊은 단맛을 찾아내면, 오늘의 치열함을 살아 낼 준비 끝. 멋들어진 커피 향기는 이미 물 한 번 붓고 나니 사무실에 가득 찼다.

오전 9시. 라디오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ON-AIR에 불이 켜지고, 스튜디오 자리마다 사람이 찼다. 시그널이 시작되고 오프닝부터 첫 곡까지 물 흐르듯 지나고 나면, 그제야 한 숨 크게 내쉰다.

같은 시각, 숨 쉴 구멍이 생긴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0967로 50원, 100원을 들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오늘 아침, 국 끓이고 밥 짓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 보내고 나니 이제야 라디오 들으며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엄마들이 매일 해내고 있는 바쁜 아침. 임무를 무사히 마친 청취자의 커피 향기가 스튜디오로 들어찬다.

“오늘 따라 지옥철이었어요. 정신없이 출근하고 이제야 라디오를 켜습니다. 먼 출근길 힘들어서 지쳤는데 신나는 노래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제 업무 시작합니다!”

음악과 함께 일에 박차를 가하는 회사원. 인터넷이나 TV를 보면서도 일할 수 없지만, 라디오를 들으면서는 일할 수 있다며 깨알같이 라디오의 매력을 어필한다.

공장에서 작업하며 모든 직원들이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청취자, 농장에서 소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다며 동물들에게까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는 열혈 청취자, 새 사업을 시작하며 라디오를 듣기 시작해 프로그램에 애착이 남다르다는 청취자, 아들이 군대 가며 듣기 시작해 이제는 손주까지 봤는데도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다는 청취자까지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방송에 맛을 더한다.



실시간 문자로 소통하고
음악으로 위로받고
자그마한 선물로 보답하는 동네.
라디오는 살아있다.



실패와 좌절, 슬픔을 나누는 청취자들도 많다.
“시험관 5번째 시도했는데, 오늘 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
어요. 울고 싶은 날이에요.
신청곡 들려주세요.”
엄마가 되고 싶은 여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문자.
“몸이 아픈 어머니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자식들이 행복
하게 헤드려야 할 텐데, 마음껏 효도하지 못한 것 같아 가슴
이 아프네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평 울었습니다.”
DJ는 물론이고, 제작진까지 눈물짓게 만드는 가슴 아픈 사연.

“군대 가고 싶지 않아서 매일 놀면서도 입대를 미루고 있었
는데, 먼저 입대했던 동생이 갑자기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동
생 간호하면서 평생 못했던 기도를 다했는데, 결국 하늘나라
에 갔어요. 눈물을 참고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형’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울컥해서 통곡을 했습
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자원입대
했어요.”

차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픈
얘기까지. 라디오는 소식을 전해주
는 청취자들을 통해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술한 감
정들을 실어 나른다.

누군가는 TV가 발명되면서 조만간 라디
오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세월이
흘러 TV가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
바일이 세상을 장악했다.
하지만 아직도 라디오는 살아있다.

실시간 문자로 소통하고 음악으로 위로받
고 자그마한 선물로 보답하는 동네.

때로는 자아성찰을 독려하고, 때로는 희망
을 선사하고, 때로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라디오.

세월이 가고 세상이 수 십 번 바뀌어도 향
기 나는 매체 ‘라디오’는 사라지지 않으리
라 확신한다. 📻

문화산책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사연을 A4 한 장에 담아

master@soyapr.com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활튼

정광숙



오오오웃!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축이 되고 있어요!!!



자활톤과 함께하는 자활생각

청년, 그 젊음에 희망을 더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좋은 직장은 들어가기 힘들어 취업을 포기하셨나요? 취업해도 목돈 마련이 어려우신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

- 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15~34세).
- ②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 I 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I 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함.

지원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시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발생 시) 지원금 월 평균 40만원(최대 1,440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소득 81만원(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 110만원 이상(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5만원 ⇒ 3년간 약 2,106만원

신청 기간

3차(6월)	4차(7월)	5차(8월)	6차(9월)	7차(10월)	8차(11월)
5.28(월)~6.12(화)	6.27(수)~7.13(금)	7.26(목)~8.13(월)	8.28(화)~9.14(금)	10.1(월)~10.12(금)	10.26(금)~11.14(수)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중증장애자활센터 뉴스

중증장애자활센터 원장 취임식

중증장애자활센터 제5대 이병학 원장의 취임식이 4월 23일(금) 오후 2시 중증장애자활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재단 임직원, 자활연수원장, 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지역자활센터 및 관련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김상균 이사장의 축사, 이학영 국회의원의, 임종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준홍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의 격려사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바란다” 동영상 상영, 취임사 및 꽃다발 증정, 축하 케이크 커팅, 다과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단체와의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식

3월7일(수) 오후 3시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단체와의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식이 정부세종청사(행정안전부) 814호에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중증장애자활센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12개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단체 인프라를 활용한 재해구호 지원 (재난발생 시 생수, 식료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주민대상 식사, 청소, 집수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실시, 민관협력 재해구호 교육·훈련 참여 등 기타 구호협력 사항)과 기관·단체별 자체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실시를 들 수 있다.





퀴즈를 풀며, '자활읽기' 다시 보기!

낱말퀴즈의 정답은 모두 이번호 자활읽기 기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자활읽기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힌트는 참조 페이지 확인)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풀고, 이번호의 평가를 함께 찍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 다섯 분께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함미누룽지
선물세트>을
보내드립니다.



1	가		나		2	다
					라	
	3	마				
4					5	
▶ 이번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						
.....						
▶ 다음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						

가로

- 1 정신적 외상 p.32 참조 . 꼭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질환임. ○○○○
- 2 유대 청년 ○○의 시련을 통해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영화. 백마가 이끄는 전차 대결 장면이 유명
- 3 노래는 '전국노래자랑', 빨래는 '○○○○○'이 대세 p.16 참조
- 4 고군산군도를 여유롭게 여행하기 위한 필수 운송수단. 쌍쌍○○○가 필수 p.14 참조
- 5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 플랭클 p.28 참조

세로

- 가 TV와 더불어 우리 생활 밀접한 공간에서 함께 하는 공중파 방송 중 하나 p.34 참조
- 나 말이 거주하는 공간
- 다 향기나는 식물. 식용으로도 많이 쓰임. ○○누리 사업단의 ○○가 최고 p.26 참조
- 라 대한민국 자활의 첨병. 지역자활센터 > ○○○○○○ > 중앙자활센터 p.2 참조
- 마 박준홍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회장이 속한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위치한 지역 p.20 참조

응모방법

1.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풀고 빈칸에 정답을 적는다.
2. 정답과 하단 설문조사가 잘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3. 사진을 이메일(master@soyapr.com) 혹은 문자(010.8996.0161)로 전송한다.

응모마감
2018년
7월 20일

당첨발표

당첨자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cssf.or.kr)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
2018년
8월 7일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DAEGU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사전등록시(-7.12까지) 박람회 쿠폰
5,000원 상당 제공 (선착순 입장 500명/일)

 2018사회적경제박람회 검색

www.2018socialfair.net
053-218-2053

SOCIAL ECONOMY FAIR

07.13. **금** - 15. **일**
대구EXCO
10:00-18:00 (일 -16:00)



메인프로그램

기념식
사회적경제인 네트워크행사
특별공연 <빅소셜데이>



전시관

사회적경제 기업관
정책홍보관
대구광역시간



부대행사

학술행사
정책설명회
경진대회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무대



테마체험

어린이 스마트폰 촬영대회
사회적경제박람회 × 대구투어
청년소셜벤처 토크콘서트
휴-식(休食)존 | 어린이플레이존
청소년 액션러닝존 | 청년 빌드존
현장이벤트



 중앙자활센터